

세미나자료 2020-12

2020. 12. 11.(금) 10:00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세미나자료 2020-12

2020. 12. 11.(금) 10:00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 일 시: 2020. 12. 11.(금) 10:00~12:00
- 장 소: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외부참석자 원격회의로 진행

● 일 정

Ⅱ 사회자: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시 간	내 용	
10:00	개 회	
10:10~10:30	주제발표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0:30~11:40	종합토론	[토론자]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인혜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김민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 임선영 (학부모) 김정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우현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1:40~11:50	질의응답	
11:50~12:00	정리 및 폐회	



CONTENTS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 주제발표

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1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종합토론

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토론 55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토론 63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3. 「2019 개정 누리과정」 어린이집 현장 지원방안 연구 69
이인혜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4.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제안 75
김민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
5.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81
임선영 (학부모)
6. 「2019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 85
김정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7.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토론문 91
우현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01

주제
발표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본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0년도 일반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차기주) 미발간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정리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 맞추어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유아들에게 놀이권과 행복권을 다시 찾아줄 필요가 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에 맞추어 개정된 누리과정이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유아의 놀이와 학습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해 갈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기도 하다.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대상 특성별로 이를 구체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교육과정 모니터링은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원활한 시행을 위한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는 활동이다 (김혜숙·이미경·양윤정·배주경·이영미·김종운·박일수·이승은, 2018, 문무경·이규림·김희수, 2016, 이종수, 2000, Patton, Sawicki, & Clark, 2016). 따라서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 이로 인한 현장의 변화와 영향, 개정 누리과정 적용 방법, 개정 누리과정 실행 시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실태에 기초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사례조사와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교원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적용과정 및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개정 누리과정 안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찾아보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개정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상황과 향후 이러한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경우를 포함하여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한 기초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개정 작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협조하여 이루어졌다.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사업은 원격연수처럼 일부 협력하고 공유하는 부분은 있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누리과정 개정과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기금이나 국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하여 교육부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달체계인 시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받아 추진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과 같은 콘텐츠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는 예산 확보를, 실제 지원업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사업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 전달체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이 2019년 7월에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9년부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는 2018년에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를 하면서 전국 권역별 토론회와 설명회 및 교사 워크숍을 통해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편의상 유형화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내에 많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컨설팅 내에 수업장학, 수업참관 및 피드백, 멘토링, 연수, 우수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넷째, 유아교육 전달체계의 경우,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사업은 시도별로 예산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멘토링, 연수, 시범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모 및 공유,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놀이매체 및 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2020년 지원 사업에서는 신규 교사를 비롯한 교원역량 강화, 부모 인식 개선,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현장의 자율성 존중, 지역을 초월한 사례 공유의 장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 시도교육청의 협력 등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다섯째, 보육 전달체계의 경우,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사업 중 수업참관 및 피드백,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우수사례 공모 및 공유 사업은 많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물리적 환경개선 지원, 놀이매체 및 재료지원 사업은 한두 개 센터를 제외하고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 및 컨설팅 등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교재교구 및 시설 개보수비 등 ‘예산 및 행정 지원’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특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덧붙여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인 2020년도 추진 사업에서 센터장들은 컨설턴트 역량 강화, 인력과 재정 지원, 관리자 인식 개선,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풀 공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사례 공유가 가능한 온라인 공간 마련, 다양한 자료 개발, 평가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2020년 지원사업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정도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에 실제 사업의 결과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정상적인 개학과 등원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교원 대상 오프라인 연수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유아들이 등원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원격교육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4곳씩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실제 및 어려움, 정책적 지원요구 등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면담 교사의 학급에서 놀이성이 낮은 유아 4명씩에 대해 2차에 걸쳐 수집한 놀이성 평가정보를 통해 개정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 놀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원장과 교사 모두 유아의 주도권 강화가 핵심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교사들은 기관장들과 달리 ‘유아의 흥미와 놀이에 기반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역할인식에서도 원장과 교사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원장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 존중 및 정서적 지원 제공, 지적 자극과 조언 제공, 교사연수 지원, 자료 및 환경 제공, 부모와 교사 간 관점 조율’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관리자로서 교사, 부모, 유아, 지역사회체제와의 총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사들은 ‘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역할, 놀이관찰을 바탕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놀이관찰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언급하여, 학급 내 교사-유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원장과 교사의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읍면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 이들은 가정에서의 지원이 미흡하고 기관에서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유아들의 경우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걸핍될 수 있는 경험과 교육적 지원을 계획해서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현했다. 어린이집 장애통합반 교사들의 관점은 학급 유아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는 일반 유아들의 놀이에 참여하고 놀이주제에 맞추어 놀이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장애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되면서 선 계획에 의해 개별 유아에게 필요한 발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가정과 연계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운영 실제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교사들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요구되는 책무성과 전문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걱정을 표현하였는데, 과연 자신의 놀이지원 방법이 옳은 것인지, 상호작용 및 놀이개입에 있어서 교사와 유아 간 주도성의 적정선은 어디인지, 학부모들이 자칫 기관에서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학급 간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지는 않을지가 주를 이루었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포용력과 융통성, 창의적·도전적 사고, 놀이 이해 및 관찰 역량, 놀이지원 역량, 교사 주도성 조절력,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기관 프로그램과 놀이중심 교육과정 간의 접목능력을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 언급하였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서적이거나 온라인 자료를 공부하고, 원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언을 구하거나, 교사연수나 원내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습공동체 및 원내 장학에서 누리과정 개정 전후 변화된 점으로 논의사항들이 ‘집단활동 혹은 수업’에 대한 것에서 ‘놀이’로 옮겨졌다는 것과 교사 간 대화 빈도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교사들끼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 및 정보·자료공유,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협력적 학습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참여 교사들은 실제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유아들의 주도성과 창의적 놀이행동을 직접 목격하고, 놀이를 통한 배움 및 유아의 유능성에 대한 믿음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음을 표현했다. 교사들은 일과 전반에서 유아와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아의 흥미 및 놀잇감 사용방법을 최대한 존중하며, 놀이 외 활동이나 일상생활, 환경구성에서 유아가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위험한 놀이의 경우도 유아가 원한다면 가능한 방법과 수준을 찾아 허용하고, 함께 놀이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놀이와 관련하여서는 놀이를 교육과정 중심에 놓기 위해 놀이공간과 자료, 시간에 변화를 주고, 필요에 따라 놀이제안이나 조언을 제공하고 놀이자료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놀이공간과 관련한 변화시도는 학급 영역을 구분하기보다는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 영역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 책상 수를 줄여 보다 넓은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 유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 학급 외 복도, 층계, 체육실 등의 공유공간 및 교사실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과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면담참여 기관에서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집단활동의 횟수를 조정하며, 놀이와 활동·일상생활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놀이자료 측면에서 비구조적 놀잇감을 확대하고, 놀이자료를 유아들과 직접 수집하거나 유아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 과거에는 제공하지 않던 다소 위험성이 있는 놀이자료도 허용하고, 유아들의 구성물을 놀잇감으로 활용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교사들의 변화시도는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행동 변화로 나타나고 있었다. 유아들은 과거에 비해 놀이자료를 원 목적이나 기능에서 벗어나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놀잇감을 교사에게 더 자주 요청하고, 주도성과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즉시 필요한 소품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요구사항 및 즐거움을 자유롭게 더 자주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놀이성이 낮은 유아들에게서도 나타나 1·2차 평가 시점 간 놀이성 전 영역(신체적·인지적·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서 유의한 정도의 향상이 나타났다.

문서작성에 있어서는 실제로 실행된 교육과정을 담기 위해 계획안 및 일지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선 계획의 범위나 양을 줄이고 유아들의 흥미 및 놀이진행을 따라 실제로 변경되어 실행된 내용을 사후에 수정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있었다. 또한, 놀이의 진행 흐름 및 관찰내용을 계획안이나 보육일지에 함께 적어서 놀이와 교육적 지원의 연계성이 보이도록 하고 있었다.

면담참여 원장과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변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많으며, 일과에서 놀이가 강화되었음을 인식하는 부모들도 코로나로 등원 횟수가 제한되고 오후 특성화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기에 기다리며 지켜보는 경우가 다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에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놀이보다는 교육적 요소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원장과 교사들은 정책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에 대한 부모대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현했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면담 참여자들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주된 요구사항은 교원연수의 다양화, 인력지원 및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부모 교육으로 나타났다. 교원연수와 관련하여 원장과 교사 대상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의 경력, 관심사 등 차별화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주제를 다양화하는 것, 이론보다는 실제적 놀이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할 것, 보육교사들도 수강 가능한 시간대의 연수를

확대해줄 것 등을 표현했다. 인력지원 및 교사-유아 비율 측면은 원장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으로, 양질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이 1:20이 넘어가는 교사 대 유아 비율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놀이 분석과 지원에 집중하기에는 기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원의 수를 늘려 교사 대 유아비율을 낮추고 행정담당이나 기타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장보육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들로 교사의 업무 종료시간이 사실상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 읍면지역의 경우는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인력충원이 어렵고 통학버스가 필수적인데 이에 4~5시간을 소진하다 보니 교사들이 놀이 분석 및 평가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놀이지원 역량 함양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1:1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 설계 시 공간면적에 관한 법적 기준이 개선되어야 하며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코로나 19로 인한 등원횟수 제한 및 원격교육 실시, 학급 내 마스크 착용과 1인 놀이 등으로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의 흥미 및 놀이를 중심에 놓고 시간과 공간, 자료, 계획안 양식, 주제선정 및 유아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주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질적으로 우수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간과 교사 대 유아 비율, 인력지원, 교원양성 및 연수에 있어 개별 기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



4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¹⁾

1)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개정 누리과정에 관하여 부모에게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장의 91.3%와 교사의 89.5%가 설명했다고 응답하였다. 원장의 경우,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유치원 원장의 설명 비율은 93.7%로 어린이집 원장에 비해 약 5% 정도 높았다.

〈표 4-1〉 개정 누리과정 관련 부모 대상 설명 여부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설명함	설명하지 않음	계(수)		설명함	설명하지 않음	계(수)	
전체	91.3	8.7	100.0	(1,000)	89.5	10.5	100.0	(1,000)
유치원	93.7	6.3	100.0	(500)	90.6	9.4	100.0	(500)
어린이집	88.9	11.1	100.0	(500)	88.4	11.6	100.0	(500)
$\chi^2(df)$	7.18(1)**				1.29(1)			

부모를 대상으로 2019년에 이루어진 누리과정 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62.9%는 누리과정 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37.1%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부모에 비해 미취업 부모의 인지 비율이 높았고,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부모의 인지 비율이 가장 높고, 대학원졸 부모의 인지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부모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서는 6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부모의 인지 비율이 6시간 이하로 이용하는 부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 각 500명씩, 2000명, 4, 5세 학부모 1,000명,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4-2〉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지 여부: 부모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62.9	37.1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61.4	38.6	100.0	(500)
어린이집	64.4	35.6	100.0	(500)
$\chi^2(df)$	0.96(1)			
취업여부				
취업	58.4	41.6	100.0	(671)
미취업	72.0	28.0	100.0	(329)
$\chi^2(df)$	17.54(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6.9	33.1	100.0	(136)
전문대졸	69.9	30.1	100.0	(219)
4년제대학졸	59.8	40.2	100.0	(493)
대학원졸 이상	59.2	40.8	100.0	(152)
$\chi^2(df)$	,8.36(3)*			
지역				
대도시	62.4	37.6	100.0	(388)
중소도시	60.3	39.7	100.0	(446)
읍/면	71.1	28.9	100.0	(166)
$\chi^2(df)$	6.09(2)*			
기관 이용 시간				
6시간 이하	56.3	43.7	100.0	(270)
6시간 초과 7시간 이하	65.7	34.3	100.0	(312)
7시간 초과	65.1	34.9	100.0	(418)
$\chi^2(df)$	6.943(2)*			

부모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의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 기관 OT, 가정통신문,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1.5%로 매우 높았고, 신문기사와 방송 14.0%, 지인의 정보 제공 10.3%로 조사되었다.



〈표 4-3〉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지 경로: 부모

단위: %(명)

구분	기관OT, 가정통신문, 전화통화 등	신문 기사 방송	극장, 지하철, 유튜브 등 관련 홍보물	누리과정 포털 등 온라인 웹사이트	지인의 정보 제공	기타	계(수)	
전체	71.5	14.0	0.3	3.0	10.3	0.8	100.0	(629)
유치원	69.7	15.6	0.0	2.6	11.4	0.7	100.0	(307)
어린이집	73.3	12.4	0.6	3.4	9.3	0.9	100.0	(322)
$\chi^2(df)$	N/S							

주: 1)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 정도에 관해 원장의 63.7%와 교사의 65.4%가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원장 33.9%, 교사 31.6%이었다. 어린이집 원장(M=2.6, SD=0.6)보다는 유치원 원장(M=2.7, SD=0.6)의 경우에 학부모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해하지 못함	이해하지 못하는 편임	이해하는 편임	매우 잘 이해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원장	2.3	33.9	61.4	2.3	100.0	(1,000)	2.6	0.6
유치원	1.9	30.2	65.2	2.7	100.0	(500)	2.7	0.6
어린이집	2.8	37.7	57.5	2.0	100.0	(500)	2.6	0.6
$\chi^2(df)/t$	7.72(3)						2.8**	
교사	3.0	31.6	64.3	1.1	100.0	(1,000)	2.6	0.6
유치원	2.6	32.9	63.4	1.1	100.0	(500)	2.6	0.6
어린이집	3.4	30.3	65.1	1.2	100.0	(500)	2.6	0.6
$\chi^2(df)/t$	1.28(3)						-0.3	

** $p < .01$.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서 놀이 중심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한 편 52.9%, 매우 필요 45.5%로 대다수의 부모들이 놀이중심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식 정도는 4점 척도에 3.4점으로 나타났다.

〈표 4-5〉 유아교육에서의 놀이 중심 필요성: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1.5	52.9	45.5	100.0	(1,000)	3.4	0.5
유치원	0.0	1.4	55.2	43.4	100.0	(500)	3.4	0.5
어린이집	0.2	1.6	50.6	47.6	100.0	(500)	3.5	0.5
$\chi^2(df)/t$	N/S						-1.1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7%가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를 걱정하고 있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놀기만 할까봐 걱정하는 부모도 11.4%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걱정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도 36.%에 달했다.

〈표 4-6〉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 부모

단위: %(명)

구분	걱정이 없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놀이만 할까봐 걱정됨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 걱정됨	기타	계(수)	
전체	36.1	11.4	51.7	0.8	100.0	(1,000)
유치원	35.0	12.2	52.0	0.8	100.0	(500)
어린이집	37.2	10.6	51.4	0.8	100.0	(500)
$\chi^2(df)$	N/S					



2) 개정 누리과정에 이해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활동

개정된 누리과정과 관련된 연수를 이수하였는지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장의 87.7%와 교사의 95.4%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의 이수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99.3%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표 4-7 참고). 원장과 교사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연수 내용, 시간, 시기, 방법과 강의 수준 및 교육장소의 적절성, 연수내용의 실제도움 정도에 대해 4점 척도에 3.0~3.3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7〉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 이수 여부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7.7	12.3	100.0	(1,000)	95.4	4.6	100.0	(1,000)
유치원	93.8	6.2	100.0	(500)	99.3	0.7	100.0	(500)
어린이집	81.5	18.5	100.0	(500)	91.4	8.6	100.0	(500)
$\chi^2(df)$	34.50(1)***				36.46(1)***			

*** $p < .001$

개정된 누리과정과 관련된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원장의 23.1%와 교사의 25.7%만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15.3%만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유치원 원장은 두 배인 3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에도 유치원 교사 31.0%, 어린이집 교사 20.3%로 유치원 원장의 장학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3.1	76.9	100.0	(1,000)	25.7	74.3	100.0	(1,000)
유치원	30.8	69.2	100.0	(500)	31.0	69.0	100.0	(500)
어린이집	15.3	84.7	100.0	(500)	20.3	79.7	100.0	(500)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chi^2(df)$	34.35(1)***			14.71(1)***		

*** $p < .001$.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원장의 92.7%와 교사의 95.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원장	2.0	5.4	63.4	29.3	100.0	(231)	3.2	0.6
유치원	3.0	5.5	62.5	29.0	100.0	(154)	3.2	0.7
어린이집	0.0	5.1	65.1	29.8	100.0	(76)	3.2	0.5
$\chi^2(df)/t$	N/S						-0.8	
교사	1.3	3.3	66.7	28.7	100.0	(257)	3.2	0.6
유치원	1.5	2.8	63.2	32.5	100.0	(155)	3.3	0.6
어린이집	1.0	4.0	72.1	23.0	100.0	(102)	3.2	0.5
$\chi^2(df)/t$	N/S						1.4	

주: 1)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 혹은 지역 내에서 참여하는 활동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원내 자육장학이 4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아리나 소모임 25.2% 원내 멘토링 23.1%, 강사초빙 원내연수 14.87% 등의 순이었다. 유치원의 경우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41.4%이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0%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타 기관 참관이 3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사초빙 원내연수 29.5%, 동아리나 소모임 20.0%, 원내 멘토링 7.2%, 원내 자율장학 4.8% 등의 순이었다. 소속기관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가 강사초빙 원내연수를 더 원하였고,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은 유치원 교사가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10〉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거나(복수응답) 참여하고 싶은 활동: 교사

단위: %(명)

구분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	타기관 참관	기타	참여하는 것 없음	계(수)	
전체	25.2	46.8	23.1	14.8	8.1	6.2	23.4	100.0	(1,000)
유치원	41.4	54.3	19.2	16.4	9.1	3.8	16.0	100.0	(500)
어린이집	9.0	39.3	27.0	13.1	7.1	8.5	30.8	100.0	(500)
전체	20.0	4.8	7.2	29.6	30.7	1.0	6.7	100.0	(1,000)
유치원	28.0	5.0	6.6	23.0	30.5	0.8	6.1	100.0	(500)
어린이집	11.9	4.6	7.8	36.2	30.9	1.2	7.3	100.0	(500)
$\chi^2(df)$	48.24(6)***								

*** $p < .001$.

교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 방법을 조사한 결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이 22.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동아리나 소모임 16.1%, 집합연수 15.9%, 강사초빙 원내연수 12.8%, 원격연수 11.4% 등의 순이었다.

〈표 4-11〉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 방법(1순위): 교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15.9	11.4	2.8	22.5	16.1	5.2	4.0	12.8	9.1	0.1	100.0	(1,000)
유치원	13.2	11.3	2.4	17.5	24.0	6.9	3.3	11.7	9.5	0.3	100.0	(500)
어린이집	18.7	11.5	3.2	27.6	8.2	3.6	4.7	13.9	8.7	0.0	100.0	(500)
$\chi^2(df)$	N/S											

주: 1) ① 집합연수 ② 원격연수 ③ 외부장학 ④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⑤ 동아리나 소모임(학습공동체) ⑥ 원내 자율장학(동료장학 등) ⑦ 원내 멘토링 ⑧ 강사초빙 원내 연수 ⑨ 타 기관 참관 ⑩ 기타

2)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3) 변화에 대한 인식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 변화하였는지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의 91.9%가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유치원 교사(94.9%)가 어린이집 교사(88.8%)에 비해 기관이 변화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2〉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의 변화 여부: 교사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91.9	8.1	100.0	(1,000)
유치원	94.9	5.1	100.0	(500)
어린이집	88.8	11.2	100.0	(500)
$\chi^2(df)$	12.91(1)***			

*** $p < .001$.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하여 기관이 변화한 사항은 무엇인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획안 양식이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7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루 일과 운영 68.3%, 평가 방법이나 양식 66.%, 실내공간 구성 62.8%, 실외공간 구성 14.5% 등의 순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특히 계획안 양식이나 실외공간 구성의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13〉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의 변화 사항(복수응답): 교사

단위: %(명)

구분	실내 공간 구성	실외 공간 구성	계획안 양식	평가 방법이나 양식	하루 일과 운영	놀이 자료	기타	계(수)	
전체	62.8	14.5	76.0	66.1	68.3	59.7	0.6	100.0	(919)
유치원	66.9	20.4	85.2	69.6	74.3	61.2	0.0	100.0	(475)
어린이집	58.5	8.1	66.3	62.5	61.8	58.0	1.3	100.0	(444)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의 변화를 체감하는지 조사한 결과, 54.0%의 부모가 체감한다고 응답하였고 46.0%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공립단설의 경우 체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립병설 56.3%, 사립개인 54.4%으로 체감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 사립법인의 경우 체감하는 비율이 46.2%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 소득이



349만 원 이하인 가구의 체감 비율이 62.7%로 가장 높았고, 65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체감 비율이 50.6%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체감 비율이 62.7%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약 52%로 유사하였다.

〈표 4-14〉 누리과정 운영 변화 체감: 부모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4.0	46.0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54.4	45.6	100.0	(500)
어린이집	53.6	46.4	100.0	(500)
$\chi^2(df)$	0.06(1)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69.8	30.2	100.0	(63)
공립병설	56.3	43.8	100.0	(112)
사립법인	46.2	53.8	100.0	(145)
사립개인	54.4	45.6	100.0	(180)
$\chi^2(df)$	10.13(3)*			
가구소득				
349만 원 이하	62.7	37.3	100.0	(233)
350~499만 원	51.4	48.6	100.0	(282)
500~649만 원	52.1	47.9	100.0	(240)
650만 원 이상	50.6	49.4	100.0	(245)
$\chi^2(df)$	9.28(3)*			
지역				
대도시	52.6	47.4	100.0	(388)
중소도시	52.0	48.0	100.0	(446)
읍/면	62.7	37.3	100.0	(166)
$\chi^2(df)$	6.02(2)*			

* $p < .05$.

부모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기관에서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주간계획안, 가정통신문, 유아관찰 및 평가 등 문서의 변화를 느낀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분위기 변화 42.6%, 하루 일과의 변화 37.4%, 실내외 환경의 변화 20.0% 등이었고, 변화된 것이 없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비율의 차이는 다소 있었으나 자녀의 연령, 소속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 부모의 취업여부와 최종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관 이용 유형, 기관 이용시간에 따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15〉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기관에서의 변화 사항(복수응답): 부모

단위: %(명)

구분	하루 일과의 변화	주간계획안, 가정통신문, 유아관찰 및 평가 등 문서의 변화	실내외 환경의 변화	유치원/어린이집 분위기의 변화	기타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변화는 없음	계(수)	
전체	37.4	66.7	20.0	42.6	0.6	5.2	100.0	(540)
유치원	37.1	64.7	17.3	44.1	0.7	4.8	100.0	(272)
어린이집	37.7	68.7	22.8	41.0	0.4	5.6	100.0	(268)

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변화하였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1%의 부모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6.1%는 변화가 없다고 느꼈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도 1.8%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자녀의 변화: 부모

단위: %(명)

구분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없다	부정적으로 변화	계(수)	
전체	52.1	46.1	1.8	100.0	(1,000)
유치원	53.2	44.8	2.0	100.0	(500)
어린이집	51.0	47.4	1.6	100.0	(500)
$\chi^2(df)$	0.82(2)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더 가고 싶어 한다는 응답이 48.0%,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응답이 40.7%,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40.5%로 나타났다. 이 밖에 더 건강해졌다고 느끼는 비율은 25.5%, 타인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21.5%였다. 유치원 이용 부모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비해 자녀가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유치원에 더 가고 싶어 하고 건강해졌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 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유치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복수응답): 부모

단위: %(명)

구분	더 건강해짐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함	창의적 생각을 함	더 즐겁고 행복	타인에 대한 배려 증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더 가고 싶어 함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전체	25.5	40.5	40.7	64.3	21.5	48.0	0.8	1.0	100.0	(521)
유치원	28.2	35.0	36.1	70.3	20.3	52.3	1.1	1.1	100.0	(266)
어린이집	22.7	46.3	45.5	58.0	22.7	43.5	0.4	0.8	100.0	(255)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부정적인 변화는 크게 학습 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및 스트레스 경험, 기관의 자율적 활동 침해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학습 부족에 대한 우려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부모들은 놀이 중심 교육으로 인해 기본학습 능력의 저하가 우려되며 학습시간이 줄어들고, 실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필요한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4) 누리과정 운영 실태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일과 시간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의 총 일과 시간은 4시간 58분이었으며, 교육 시간 3시간 11분, 일상생활 시간 1시간 28분, 전이 및 기타 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총 일과시간은 5시간 59분, 교육시간은 4시간 28분, 일상생활

시간은 2시간 32분, 전이 및 기타시간은 30분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운영시간이 짧은 유치원보다 더 길었다.

〈표 4-18〉 누리과정 일과 운영 시간: 교사

단위: 분

구분	전체(n=1,000)		유치원(n=500)		어린이집(n=50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과 총 시간	378.5	113.0	297.8	73.5	459.3	84.1	-32.3***
교육시간							
실내놀이	125.6	59.5	88.3	38.5	162.8	53.1	-25.4***
실외놀이	63.5	20.0	60.2	18.9	66.7	20.6	-5.2***
교사주도활동	39.8	27.3	42.6	26.6	36.9	27.6	3.3***
소계	229.6	68.2	191.0	50.0	268.2	61.9	-21.7***
일상생활시간							
점심 및 간식	64.2	24.3	53.8	17.4	74.5	25.8	-14.8***
낮잠 및 휴식	29.4	36.5	7.7	15.1	51.0	38.7	-23.3***
기본생활	31.1	19.2	26.4	17.5	35.9	19.6	-8.1***
소계	124.8	58.5	87.8	34.4	161.8	54.0	-25.9***
전이 및 기타시간							
전이시간	124.8	58.5	16.2	21.4	25.6	24.6	-6.5***
기타	3.3	14.3	2.4	12.1	4.2	16.2	-2.0*
소계	25.0	30.1	20.0	29.3	30.1	30.1	-5.4***

편성·운영 관련 운영 내용에 대한 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가 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교사의 경우에는 원장과 유사하게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가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4-19〉 개정 누리과정 편성·운영 내용의 실천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계(수)		평균	표준편차	계(수)	
①	전체	3.6	0.5	100.0	(1,000)	3.4	0.6	100.0	(1,000)
	유치원	3.8	0.4	100.0	(500)	3.6	0.5	100.0	(500)
	어린이집	3.4	0.5	100.0	(500)	3.2	0.5	100.0	(500)
	<i>t</i>	15.0***				12.1***			
②	전체	3.5	0.5	100.0	(1,000)	3.4	0.5	100.0	(1,000)
	유치원	3.6	0.5	100.0	(500)	3.5	0.5	100.0	(500)
	어린이집	3.4	0.5	100.0	(500)	3.3	0.5	100.0	(500)
	<i>t</i>	8.1***				6.4***			
③	전체	3.5	0.5	100.0	(1,000)	3.4	0.5	100.0	(1,000)
	유치원	3.7	0.5	100.0	(500)	3.5	0.5	100.0	(500)
	어린이집	3.3	0.5	100.0	(500)	3.3	0.5	100.0	(500)
	<i>t</i>	9.9***				6.7***			
④	전체	3.6	0.5	100.0	(1,000)	3.5	0.6	100.0	(1,000)
	유치원	3.7	0.5	100.0	(500)	3.6	0.5	100.0	(500)
	어린이집	3.4	0.5	100.0	(500)	3.4	0.6	100.0	(500)
	<i>t</i>	8.5***				5.5***			
⑤	전체	3.6	0.5	100.0	(1,000)	3.5	0.5	100.0	(1,000)
	유치원	3.7	0.5	100.0	(500)	3.5	0.5	100.0	(500)
	어린이집	3.5	0.5	100.0	(500)	3.5	0.5	100.0	(500)
	<i>t</i>	4.5***				2.1*			
⑥	전체	3.5	0.5	100.0	(1,000)	3.4	0.5	100.0	(1,000)
	유치원	3.6	0.5	100.0	(500)	3.5	0.5	100.0	(500)
	어린이집	3.4	0.5	100.0	(500)	3.4	0.5	100.0	(500)
	<i>t</i>	6.2***				3.1**			
⑦	전체	3.4	0.6	100.0	(1,000)	3.2	0.6	100.0	(1,000)
	유치원	3.4	0.6	100.0	(500)	3.2	0.6	100.0	(500)
	어린이집	3.3	0.5	100.0	(500)	3.2	0.6	100.0	(500)
	<i>t</i>	5.1***				1.5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계(수)		평균	표준편차	계(수)	
⑧	전체	3.4	0.6	100.0	(1,000)	3.3	0.6	100.0	(1,000)
	유치원	3.5	0.5	100.0	(500)	3.4	0.5	100.0	(500)
	어린이집	3.3	0.6	100.0	(500)	3.2	0.6	100.0	(500)
	<i>t</i>	6.5***				5.0***			

주: 1) ①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②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④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⑤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⑥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⑦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⑧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 내용 중 교수·학습에 대한 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가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와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가 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4-20〉 개정 누리과정 교수·학습 내용의 실천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계(수)		평균	표준편차	계(수)	
①	전체	3.4	0.6	100.0	(1,000)	3.3	0.6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4	0.6	100.0	(500)	3.3	0.6	100.0	(500)
	어린이집	3.4	0.5	100.0	(500)	3.3	0.5	100.0	(500)
②	<i>t</i>	-0.5				-0.1			
	전체	3.5	0.5	100.0	(1,000)	3.4	0.5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5	0.6	100.0	(500)	3.4	0.5	100.0	(500)
	어린이집	3.4	0.5	100.0	(500)	3.3	0.5	100.0	(500)
	<i>t</i>	2.6**				2.0*			
③	전체	3.4	0.5	100.0	(1,000)	3.4	0.5	100.0	(1,000)
	소속기관								



주제발표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계(수)		평균	표준편차	계(수)	
	유치원	3.5	0.5	100.0	(500)	3.4	0.5	100.0	(500)
	어린이집	3.3	0.5	100.0	(500)	3.3	0.5	100.0	(500)
	<i>t</i>	4.7***				1.5			
④	전체	3.2	0.6	100.0	(1,000)	3.1	0.6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3	0.6	100.0	(500)	3.1	0.6	100.0	(500)
	어린이집	3.2	0.5	100.0	(500)	3.1	0.6	100.0	(500)
	<i>t</i>	3.1**				-0.2			
⑤	전체	3.3	0.6	100.0	(1,000)	3.1	0.6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3	0.6	100.0	(500)	3.1	0.6	100.0	(500)
	어린이집	3.2	0.5	100.0	(500)	3.1	0.6	100.0	(500)
	<i>t</i>	3.3**				-0.5			
⑥	전체	3.4	0.5	100.0	(1,000)	3.2	0.6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5	0.5	100.0	(500)	3.3	0.6	100.0	(500)
	어린이집	3.4	0.5	100.0	(500)	3.2	0.6	100.0	(500)
	<i>t</i>	4.2***				3.4***			
⑦	전체	3.4	0.5	100.0	(1,000)	3.3	0.5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5	0.5	100.0	(500)	3.4	0.5	100.0	(500)
	어린이집	3.3	0.5	100.0	(500)	3.3	0.5	100.0	(500)
	<i>t</i>	5.9***				3.2**			

주: 1) ①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②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③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④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⑥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 내용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천 정도를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가 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교사는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와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가 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4-21〉 개정 누리과정 평가 내용의 실천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계(수)		평균	표준편차	계(수)	
①	전체	3.3	0.5	100.0	(1,000)	3.2	0.5	100.0	(1,000)
	유치원	3.4	0.5	100.0	(500)	3.3	0.5	100.0	(500)
	어린이집	3.2	0.5	100.0	(500)	3.2	0.5	100.0	(500)
	<i>t</i>	3.1**				1.6			
②	전체	3.3	0.5	100.0	(1,000)	3.3	0.5	100.0	(1,000)
	유치원	3.4	0.5	100.0	(500)	3.3	0.5	100.0	(500)
	어린이집	3.3	0.5	100.0	(500)	3.2	0.5	100.0	(500)
	<i>t</i>	3.2**				0.9			
③	전체	3.3	0.6	100.0	(1,000)	3.2	0.5	100.0	(1,000)
	유치원	3.4	0.6	100.0	(500)	3.2	0.5	100.0	(500)
	어린이집	3.2	0.5	100.0	(500)	3.2	0.5	100.0	(500)
	<i>t</i>	4.0***				1.7			
④	전체	3.4	0.5	100.0	(1,000)	3.3	0.5	100.0	(1,000)
	유치원	3.4	0.5	100.0	(500)	3.3	0.5	100.0	(500)
	어린이집	3.3	0.5	100.0	(500)	3.2	0.5	100.0	(500)
	<i>t</i>	5.2***				1.9			

주: 1) ①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②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③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의 종류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간계획안 69.1%, 연간계획안 66.7%, 일일계획안 56.4%, 월간계획안 55.9%로 나타났으며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1%가 나왔다. 소속 기관에 따라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전체 경향과 동일하였으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연간 계획안이 7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간계획안 70.7%, 일일계획안 59.7%, 월간계획안 58.9% 등의 순이었다.

〈표 4-22〉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복수응답): 교사

단위: %(명)

구분	일일 계획안	주간 계획안	월간 계획안	연간 계획안	작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56.4	69.1	55.9	66.7	1.1	100.0	(1,000)
유치원	53.0	67.5	52.9	60.9	1.9	100.0	(500)
어린이집	59.8	70.7	58.9	72.5	0.4	100.0	(500)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의 형태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일과에 따라 놀이와 활동계획을 작성한다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놀이 기록 후 마지막에 향후 계획 기술 51.1%, 놀이 흐름에 따라 자료 등 명시 41.5% 등의 순이었다.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전체 경향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표 4-23〉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의 형태(복수응답): 교사

단위: %(명)

구분	기존의 계획안 사용	일과에 따라 놀이와 활동 계획	놀이 기록 후 마지막에 향후 계획 기술	놀이 흐름에 따라 자료 등 명시	일정한 형식 없이 놀이에 따라 자유 기재	기타	계(수)	
전체	10.8	62.2	51.1	41.6	12.8	0.8	100.0	(981)
유치원	6.3	63.4	52.5	39.1	18.3	0.6	100.0	(486)
어린이집	15.2	61.0	49.8	44.0	7.4	1.0	100.0	(495)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놀이자료를 조사한 결과의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종이 상자, PET병 등 재활용품이 46.8%로 가장 많았고, 나무, 흙, 돌 등 자연물이 25.4%, 상업화된

교재교구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활용하는 놀이자료의 순서는 동일하였으나 비율에서 차이가 있어, 나무, 흙, 돌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는 비율은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표 4-24〉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놀이자료(1순위): 교사

단위: %(명)

구분	나무, 흙, 돌 등 자연물	종이상자, PET병 등 재활용품	교사 제작 교재교구	상업화된 교재교구	기타	계(수)	
전체	25.4	46.8	10.4	17.2	0.3	100.0	(1,000)
유치원	31.5	45.6	6.7	15.9	0.4	100.0	(500)
어린이집	19.3	48.0	14.0	18.5	0.2	100.0	(500)
$\chi^2(df)$	N/S						

주: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하는 내용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아 놀이가 81.0%로 현저히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7.1%, 유아 발달 6.0% 등의 순이었다. 소속기관에 따라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표 4-25〉 개정 누리과정 운영 관련 평가 내용(1순위): 교사

단위: %(명)

구분	유아 놀이	유아 발달	일과 운영	실내외 놀이공간	놀이 자료	유아와의 상호작용	기타	평가하지 않음	계(수)	
전체	81.0	6.0	3.3	0.7	1.7	7.1	-	0.2	100.0	(1,000)
유치원	81.0	6.7	4.0	1.0	0.8	6.0	-	0.5	100.0	(500)
어린이집	80.9	5.3	2.6	0.4	2.6	8.2	-	0.0	100.0	(500)
$\chi^2(df)$	N/S									

주: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개정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1순위 응답에 대한 평가 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실시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 1~2회가 19.7%이었고, 나머지는 10% 미만이었다. 소속기관에 따라서도 대체로 유사하였다.



〈표 4-26〉 개정 누리과정 운영 관련 평가 내용 1순위의 평가 빈도: 교사

단위: %(명)

구분	매일	주 3~4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2개월에 1회 (연5~6회)	분기별 1회 (연3~4회)	연 2회 (상하반기)	연 1회	계(수)	
1순위 빈도	44.7	9.8	19.7	7.4	10.7	0.9	2.3	4.2	0.2	100.0	(998)
유치원	40.1	9.9	23.1	6.7	9.7	1.5	2.1	6.6	0.4	100.0	(498)
어린이집	49.4	9.8	16.3	8.2	11.6	0.4	2.5	1.8	0.0	100.0	(500)
$\chi^2(df)$	N/S										

주: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유아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1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관찰기록이 77.7%로 현저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진, 동영상 10.3%, 놀이결과물, 작품 8.5%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4-27〉 유아 평가 방법(1순위): 교사

단위: %(명)

구분	관찰기록	놀이결과물, 작품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표준화된 검사	사진, 동영상	계(수)	
1순위	77.8	8.5	3.0	0.3	10.3	100.0	(998)
유치원	75.5	9.3	2.6	0.0	12.6	100.0	(498)
어린이집	80.1	7.8	3.3	0.6	8.1	100.0	(500)
$\chi^2(df)$	N/S						

주: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5)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변화

개정 누리과정이 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내용이 간결해져 운영이 쉬워졌다는 의견이 51.7%로 가장 많은 반면, 연령별로 제시되지 않아 운영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23.9%에 달했다. 한편,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1.4%이었다. 교사의 경우에도 원장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내용이 간결해져 운영이 쉬워졌다는 의견은 55.8%이었고, 연령별로 제시되지 않아 운영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의견은 21.6%이었다. 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은 원장보다 낮은 수치인 16.3%로 나타났다.

〈표 4-28〉 개정 누리과정이 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분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음	내용 간결해져 운영 쉬워짐	연령별로 제시되지 않아 운영 어려움	잘 모르겠음	계(수)	
원장	21.4	51.8	23.9	2.9	100.0	(1,000)
유치원	18.5	57.3	21.7	2.4	100.0	(500)
어린이집	24.3	46.2	26.0	3.4	100.0	(500)
$\chi^2(df)$	12.42(3)**					
교사	16.3	55.8	21.6	6.4	100.0	(1,000)
유치원	15.9	57.3	20.5	6.3	100.0	(500)
어린이집	16.7	54.3	22.6	6.4	100.0	(500)
$\chi^2(df)$	1.19(3)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기관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계획안, 평가 양식 등 문서 34.7%이었다. 이에 비해 교사는 계획안, 평가 양식 등 문서 36.5%, 교사의 역할 28.2%로 원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4-2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의 변화

단위: %(명)

구분	하루 일과	계획안, 평가 양식 등 문서	물리적 환경	조직 문화	교사의 역할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원장	10.8	34.7	12.0	2.8	36.4	0.2	3.3	100.0	(1,000)
유치원	14.1	35.8	12.7	2.4	31.3	0.2	3.4	100.0	(500)
어린이집	7.4	33.5	11.2	3.1	41.4	0.2	3.1	100.0	(500)
$\chi^2(df)$	N/S								
교사	15.8	36.5	14.2	1.7	28.2	-	3.6	100.0	(1,000)
유치원	18.6	41.0	13.1	1.5	23.7	-	2.1	100.0	(500)
어린이집	13.1	32.0	15.2	2.0	32.7	-	5.1	100.0	(500)
$\chi^2(df)$	24.19(5)***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원장의 변화에 대한 원장 자신의 인식은 유아 및 놀이에 대한 관점을 비롯한 교육 철학이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 지원 업무 등 기관장의 역할 변화 29.9%이었다. 교사의 경우에도 원장의 교육철학 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39.3%), 그 다음으로는 기관장 역할 30.6%로, 원장의 인식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표 4-30〉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원장의 변화

단위: %(명)

구분	교육 철학	기관장 역할	업무 시간 분배	교사와의 관계	유아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리더십 유형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원장	47.4	29.9	2.2	2.0	6.7	2.2	2.2	0.3	7.1	100.0	(1,000)
유치원	48.8	28.3	1.1	1.9	9.2	1.4	2.7	0.0	6.5	100.0	(500)
어린이집	46.0	31.4	3.3	2.0	4.3	2.9	1.8	0.7	7.7	100.0	(500)
$\chi^2(df)$	N/S										
교사	39.3	30.6	2.1	2.4	3.8	1.2	1.9	0.2	18.5	100.0	(1,000)
유치원	37.1	28.0	1.4	2.7	2.7	1.4	1.6	0.1	24.9	100.0	(500)
어린이집	41.4	33.1	2.8	2.1	4.9	1.1	2.2	0.2	12.2	100.0	(500)
$\chi^2(df)$	N/S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교사의 변화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원장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철학 22.8%이었다. 교사의 경우도 교사의 역할 39.9%, 교육철학 34.6%로 원장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4-31〉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교사의 변화

단위: %(명)

구분	교육 철학	교사 역할	교육 과정 운영	업무 시간 분배	원장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유아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전문성 제고 노력	변화 없음	계(수)	
원장	22.8	39.5	12.2	0.6	0.1	0.5	10.2	0.7	10.7	2.7	100.0	(1,000)
유치원	22.1	41.6	13.1	0.7	0.2	0.8	10.6	0.6	7.5	2.7	100.0	(500)
어린이집	23.5	37.4	11.3	0.6	0.0	0.2	9.7	0.8	13.8	2.7	100.0	(500)
$\chi^2(df)$	N/S											

구분	교육 철학	교사 역할	교육 과정 운영	업무 시간 분배	원장 과의 관계	동료 와의 관계	유아 와의 관계	학부모 와의 관계	전문성 제고 노력	변화 없음	계(수)	
교사	34.6	39.9	8.5	1.0	0.2	0.2	9.6	5.8	0.1	-	100.0	(1,000)
유치원	33.6	40.5	10.0	1.0	0.1	0.2	9.7	4.7	0.1	-	100.0	(500)
어린이집	35.6	39.4	7.1	1.0	0.2	0.2	9.5	7.0	0.0	-	100.0	(500)
$\chi^2(df)$	N/S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업무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시간 변화의 정도가 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 3.8, 잡무 처리시간 3.6 순이었다. 활동 준비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치원 교사의 변화 인식이 높았다.

〈표 4-32〉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업무시간의 변화: 교사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시간	전체	3.9	0.8	(1,000)
	유치원	3.9	0.8	(500)
	어린이집	3.8	0.8	(500)
	<i>t</i>	2.4*		
활동(이야기나누기 등) 준비 시간	전체	3.1	1.0	(1,000)
	유치원	3.9	0.8	(500)
	어린이집	3.8	0.8	(500)
	<i>t</i>	2.4*		
계획 및 평가 문서 작성시간	전체	3.4	1.0	(1,000)
	유치원	3.4	1.1	(500)
	어린이집	3.3	1.0	(500)
	<i>t</i>	1.8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	전체	3.5	0.7	(1,000)
	유치원	3.6	0.7	(500)
	어린이집	3.4	0.7	(500)
	<i>t</i>	3.6***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	전체	3.8	0.7	(1,000)
	유치원	3.8	0.8	(5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어린이집	3.7	0.7	(500)
	<i>t</i>	1.6		
잡무 처리시간	전체	3.6	0.9	(1,000)
	유치원	3.7	0.9	(500)
	어린이집	3.5	0.8	(500)
	<i>t</i>	4.1***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부모의 변화 정도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원장과 교사 모두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변화가 없다는 응답 또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라는 응답은 원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변화 없다는 응답은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33〉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부모의 변화

단위: %(명)

구분	교육 철학	부모 로서의 역할	원장 및 교사와의 관계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	기관운영 및 행사 참여 제고	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원장	2.2	5.4	1.3	54.8	2.3	6.3	0.3	27.4	100.0	(1,000)
유치원	1.8	5.9	1.4	63.1	1.0	5.5	0.3	20.8	100.0	(500)
어린이집	2.5	4.9	1.2	46.4	3.6	7.1	0.4	34.0	100.0	(500)
$\chi^2(df)$	N/S									
교사	4.3	5.6	1.0	46.7	2.1	6.4	0.3	33.5	100.0	(1,000)
유치원	5.9	4.9	0.7	47.6	1.9	5.8	0.0	33.3	100.0	(500)
어린이집	2.8	6.4	1.4	45.7	2.3	7.1	0.6	33.8	100.0	(500)
$\chi^2(df)$	N/S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해 유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원장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원장과 교사 모두 주도성 증대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통적으로 창의성 증대였다. 원장과 교사의 소속기관에 따른 유아의 변화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34〉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유아의 변화

단위: %(명)

구분	건강 증진	주도성 증대	창의성 증대	감성 증대	배려심 증대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원장	2.1	54.6	29.8	2.9	3.6	0.4	6.7	100.0	(1,000)
유치원	2.6	59.1	27.3	3.4	3.4	0.2	4.0	100.0	(500)
어린이집	1.6	50.0	32.2	2.4	3.8	0.6	9.3	100.0	(500)
$\chi^2(df)$	N/S								
교사	2.0	49.6	36.2	1.9	2.9	0.4	7.1	100.0	(1,000)
유치원	3.0	53.7	31.2	1.5	2.3	0.2	8.0	100.0	(500)
어린이집	1.0	45.4	41.1	2.2	3.4	0.6	6.3	100.0	(500)
$\chi^2(df)$	N/S								

6)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데 미친 영향에 대하여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원장 58.5%, 교사 60.0%이었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은 원장과 교사 8% 미만이었다. 한편,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원장과 교사 모두 3.5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치원 원장은 3.7점, 어린이집 원장은 3.4점으로 유치원 원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교사(3.4점)에 비해 유치원 교사(3.6점)가 그 영향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표 4-35〉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미친 영향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계(수)		평균	표준편차	계(수)	
전체	3.5	0.6	100.0	(1,000)	3.5	0.7	100.0	(1,000)
유치원	3.7	0.5	100.0	(500)	3.6	0.6	100.0	(500)
어린이집	3.4	0.7	100.0	(500)	3.4	0.7	100.0	(500)
t	7.2***				5.9***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살펴보면, 방역이나 원격교육으로 인해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59.7%로 가장 많은 반면, 유아 대 교사 비율이 줄어들어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실행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16.1% 존재하였다. 또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별 놀이 중심 누리과정 운영으로 오히려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의견도 21.9%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도 방역이나 원격교육으로 인해 개정 누리과정 실행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다.

〈표 4-36〉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미친 영향 내용

단위: %(명)

구분	방역, 원격교육으로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실행 어려움	유아 대 교사 비율 감소로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실행 원활	접촉 최소화 및 개별 놀이 중심 운영으로 개인 맞춤형 지원 가능	기타	계(수)	
원장	59.7	16.1	21.9	2.3	100.0	(938)
유치원	70.2	9.5	18.3	2.1	100.0	(485)
어린이집	48.5	23.2	25.9	2.4	100.0	(453)
$\chi^2(df)$	51.59(3)***					
교사	59.6	21.5	16.4	2.5	100.0	(924)
유치원	74.9	11.2	11.9	2.0	100.0	(472)
어린이집	43.5	32.3	21.2	3.0	100.0	(452)
$\chi^2(df)$	99.06(3)***					

7)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애로점 및 지원 요구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경험하는 애로점을 조사한 결과,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교사의 비율이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 다음은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원장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37〉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원장	7.4	26.8	6.5	7.6	28.3	4.7	4.8	4.4	0.6	0.9	7.9	0.1	100.0	(1,000)
유치원	5.3	20.9	8.1	6.2	36.0	5.9	4.1	5.2	0.2	0.5	7.6	0.1	100.0	(500)
어린이집	9.6	32.6	4.9	9.1	20.6	3.6	5.5	3.7	1.0	1.4	8.1	0.0	100.0	(500)
$\chi^2(df)$	N/S													
교사	6.8	15.4	6.8	7.1	36.5	8.1	6.7	5.6	0.3	2.4	3.9	0.4	100.0	(1,000)
유치원	5.1	14.4	6.6	5.9	42.0	6.6	5.6	7.1	0.0	1.9	4.8	0.0	100.0	(500)
어린이집	8.5	16.5	7.1	8.2	30.9	9.7	7.8	4.0	0.6	3.0	3.0	0.8	100.0	(500)
$\chi^2(df)$	N/S													

주: 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②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③ 기관 고유 프로그램과의 조화
 ④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 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⑥ 계획안과 평가 등 문서 작성 및 관리 ⑦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⑧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⑨ 기관평가 대비 ⑩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⑪ 학부모의 이해 부족(학습에 대한 요구 등) ⑫ 기타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대한 원장 보고 결과를 살펴보면, 놀이 이외의 학습적인 것에 대한 요구가 44.6%, 바깥놀이나 대근육 활동시간 확대 및 특별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각각 약 15% 등으로 나타났다.

〈표 4-38〉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요구 사항: 원장

단위: %(명)

구분	실내 놀이시간 확대 요구	바깥놀이나 대근육 활동시간 확대 요구	놀이 외 학습적인 것 요구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	기타	요구사항 없음	계(수)	
전체	2.0	15.6	44.6	15.6	0.9	21.3	100.0	(1,000)
유치원	1.5	15.4	43.4	20.4	0.9	18.4	100.0	(500)
어린이집	2.6	15.7	45.9	10.8	0.9	24.2	100.0	(500)
$\chi^2(df)$	N/S							

주: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원장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장 지원 자료 제작 및 보급이 47.4%로 가장 요구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심화 연수 제공 22.9%, 컨설팅 확대 9.9%,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9.5% 등이었다. 유치원 원장은 현장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학습공동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에 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심화연수 제공, 컨설팅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가 5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15.0%, 심화연수 제공 13.8% 등의 순이었다.

〈표 4-39〉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단위: %(명)

구분	심화 연수 제공	컨설팅 확대	현장지원 자료 제작 및 보급	학습 공동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기타	계(수)	
전체	22.9	9.9	47.4	8.9	9.5	1.4	100.0	(1,000)
유치원	17.5	6.9	47.8	11.8	14.8	1.2	100.0	(500)
어린이집	28.3	12.8	46.9	6.1	4.3	1.7	100.0	(500)
$\chi^2(df)$	59.90(5)***							
전체	13.9	8.6	54.2	7.5	15.0	0.7	100.0	(1,000)
유치원	11.7	6.3	50.9	11.0	19.2	0.9	100.0	(500)
어린이집	16.2	11.0	57.5	4.0	10.7	0.6	100.0	(500)
$\chi^2(df)$	N/S							

주: N/S: 통계분석 결과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01$.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교육 강화 27.0%이었다. 교사의 경우도 원장과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나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비율은 더욱 높았다. 부모의 경우는 원장이나 교사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이 32.8%로 가장 많았고,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과 교사교육 강화가 20%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기관 소속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4-40〉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교육 강화	실내 외 환경 개선 지원	「2019 개정 누리 과정」 홍보 강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보조 인력 지원	문서 등 행정 관리 간소화	기관 평가 지표 및 방법 개선	누리 과정 포털 (i-누리) 활성화	기타	계(수)	
원장	27.0	11.5	2.9	12.0	33.1	4.1	5.3	2.5	1.5	0.2	100.0	(1,000)
유치원	22.5	11.6	2.1	11.3	34.4	5.9	7.7	2.0	2.3	0.1	100.0	(500)
어린이집	31.5	11.3	3.7	12.7	31.8	2.4	2.9	2.9	0.6	0.3	100.0	(500)
$\chi^2(df)$	N/S											
교사	11.4	9.7	3.6	11.4	47.5	5.8	7.5	1.2	1.6	0.4	100.0	(1,000)
유치원	12.0	9.0	3.9	9.8	51.8	5.7	5.9	0.1	1.5	0.2	100.0	(500)
어린이집	10.7	10.4	3.2	13.0	43.2	5.8	9.1	2.4	1.6	0.6	100.0	(500)
$\chi^2(df)$	N/S											
부모	19.9	13.9	3.4	32.9	20.9	5.0	2.4	0.5	1.0	0.1	100.0	(1,000)
유치원	18.6	15.4	3.2	34.2	20.6	4.8	2.2	0.4	0.4	0.2	100.0	(500)
어린이집	21.2	12.4	3.6	31.6	21.2	5.2	2.6	0.6	1.6	0.0	100.0	(500)
$\chi^2(df)$	N/S											



5 정책 제언

가. 정책 방향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되 현장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둘째,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발성을 유도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의 참여를 확대하고,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을 신장한다.

넷째,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제고를 통해 기관과 가정이 연계하고 협동한다.

다섯째,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상황과 미래 사회 변화 속에서도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책 방안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맞추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것을 실천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달체계 지원 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담당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원장(감),

학부모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들은 비교적 분명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개정 방향에 맞게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주체인 교사와 이를 지원하는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력해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과 보조 인력 배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과 개선에 더하여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관평가 지표나 방식에 변화를 주고, 감염병 상황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원격교육 관련 자료를 지원해 주어야 하며,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5가지 정책 방향에 맞추어 법과 제도 측면, 행정 측면,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표 VI-2-1>과 같다.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관련법을 살펴보고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 측면에서는 시도교육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재정 측면에서는 각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대략의 비용을 추계하였다.

〈표 5-1〉 정책 방안

구분	정책 방안
법과 제도 측면	1)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단위 기관의 권한 강화 2)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기관평가 개선 3)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인력 배치 4)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 5) 원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 측면	1)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 2)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운영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 방법의 개선 4)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개발 자료 공유 5) 현장 사례 공유의 장 활성화: 온오프라인 6) 초중등 환경 개선 사업 연계 7) 원격교육 자료 개발 및 관련 연수 실행
재정 측면	1)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2) 개정 누리과정 운영 현장 실천사례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지원 3)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지원 4)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국민 대상 캠페인 지원



1) 법과 제도 측면

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단위 기관의 권한 강화

현행법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단위 기관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서 교육감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9조 3항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어린이집의 원장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지역 실정과 기관 특성에 적합하게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5-2〉 교육과정·보육과정 운영 관련법 개정 의견

현행법	개정 의견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u>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u>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3. 21., 2013. 3. 23.>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②_____ _____,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에 <u>기초하여</u>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u>정해야 한다.</u> <_____, 2021. 00. 00.>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u>기초하여 지역 실정과 기관 특성에 적합하게</u> 영유아를 보육 <u>하여야 한다.</u> <_____, 2021. 00. 00.>

나)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기관평가 개선

현행법에서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기관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 평가 개정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평가의 경우는 이미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정부의 평가지표에 기초하되 지자체

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방법을 정할 때 관할 유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는 중앙정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현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평가지표와 기준은 지역과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표 5-3〉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관련법 개정 의견

현행법	개정 의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u>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유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u> <_____, 2021. 00. 00.> ② _____ _____ _____.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관할 유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u>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2021. 00. 0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의 실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의 실시) ③ _____ _____.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u>평가지표와 기준은 지역과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u> <_____, 2021. 00. 00.>



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인력 배치

현행법을 살펴보면 인력 배치에 있어서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 방향인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배치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0조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교원의 공백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학급당 유아수를 정하는 내용은 살리되 어린이집 배치 기준에 준하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현재 어린이집 기준보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좀 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두 기관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제23조의2 제2항에 있는 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원장과 원감, 수석교사가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가 전담함으로써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함으로써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표 5-4〉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배치 관련법 개정 의견

현행법	개정 의견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③유치원에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교원의 공백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u>(신설 2021. 00. 00.)</u>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u>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u>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0. 5. 3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u>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되 교사 1인을 기준으로 3세는 15명, 4세와 5세는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_____, 2021. 00. 00.> [전문개정 2010. 5. 31.]

현행법	개정 의견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_____ _____, <i>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삭제 2021. 00. 00.)</i>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② _____, <i>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삭제 2021. 00. 00.)</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u>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u>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00. 00.>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u>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삭제 2021. 00. 00.)</u>

라)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

현행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장학이나 연수, 보수교육 중심으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이나 최근 사회변화를 고려해 볼 때 교원 주도의 자율적인 연수를 권장하고 이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자율적인 전문성 제고 활동을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시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교원의 자율연수 시간을 의무연수 시간이나 학점,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1항의 내용 중 최근 사회변화를 감안하여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의 보수교육 구분에 자율연수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으로 자율연수는 교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자율연수 시간은 의무 보수교육 시간이나 학점, 인센티브로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동조 제6항과 제7항에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중 사전직무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계획수립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수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사의 자율연수 지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할 수 있다.



〈표 5-5〉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전문성 제고 관련법 개정 의견

현행법	개정 의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가의 기준)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함께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가의 기준) ③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자율적인 전문성 제고 활동을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시간 및 인력을 지원한다. (신설 2021. 00. 00.)</u> ④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자율연수 시간을 의무연수 시간이나 학점,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1. 00. 00.)</u> [전문개정 2010. 5. 31.]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_____ _____, 이 경우 보수교육은 <u>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21. 00. 00.)</u> 〈개정 2015. 5. 18., 2021. 00. 00.〉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u>직무교육, 승급교육 및 자율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 00. 00.)</u>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u>사전직무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u> 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0. 00.〉 ⑥ <u>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연수는 교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자율연수 시간은 의무 보수교육 시간이나 학점, 인센티브로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1. 00. 00.)</u> ⑦ <u>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교사의 자율연수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1. 00. 00.)</u> [전문개정 2009. 7. 3.]

마) 원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유아교육에서도 감염병과 미래 사회변화를 대비하여 초중등교육법의 원격교육 근거를 참고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원격교육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보육으로 대부분의 유아들이 등원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나

실행은 거의 찾아보지 못하였고, 영유아보육법에 원격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기 어렵다. 따라서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 내용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3~5세 유아에게도 공히 적용할 수 있음을 덧붙이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표 5-6〉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격교육 관련법 개정

현행법	개정 의견
유아교육법 제12조(수업일수 등)	유아교육법 제12조(수업일수 등) <u>③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조항은 필요 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3~5세 유아에게도 공히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00. 00.></u>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0.>	



2) 행정 측면

가)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은 현장 교사의 자율성 강화이며,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과 기관 및 담당 유아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 교육지원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사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이 시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학습공동체 참여 시 수당 지원이나 우수

사례 선정 시 장관 표창 등의 유인가를 제공하고, 시간과 인력 지원을 통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교사가 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기관장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교사가 학습공동체에 참여 시 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를 경감해 주도록 한다. 교사가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교사와 기관장 모두에게 큰 보상이 되겠지만, 참여 초기에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가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운영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나 컨설팅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별, 시군구별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멘토나 컨설턴트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시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지역별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인력 풀은 연수, 장학, 컨설팅, 멘토링 등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범기관이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데도 훌륭한 인력 자원이 된다. 컨설턴트 양성 교육 등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연수과정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사례집으로 묶어 공유함으로써 전문가와 교사의 전문성이 함께 제고되도록 한다.

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 방법의 개선

그 동안의 연수가 정부나 시도교육청 혹은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고 대규모 집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연수는 그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연수의 대상이 주로 2030 세대이고, 시각적인 자료에 익숙하며 IT 사용이 능숙한 이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일방향식 집단 연수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고 난 이후 시간과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대규모 집단연수나 원격연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다 심화된 연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대집단 일방향적인 연수보다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 형식이나 숙의 토론, 워크숍, 포럼, 세미나, 월드카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연수 방법은 참여자 특성과 규모, 다루는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개발 자료 공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면서 시도별로 교육과정 우수 실천 사례를 포함한 양질의 다양한 지원자료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자체별로 빠르게 대응하여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일 혹은 주 단위로 다양한 교육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나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교사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라서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으로 인해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처음부터 자료를 개발할 때 전국의 교사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 자료를 공유할 때 각각의 업무는 경감되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는 더욱 풍성해진다.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모임을 활성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모임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시도별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나누고 협력하여 유용한 자료를 함께 혹은 분담하여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에 있어서 지역 격차는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 현장 사례 공유의 장 활성화: 온오프라인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이며, 우수한 현장 실천 사례가 곧 다른 교사들의 연수 자료가 된다. 같은 주제나 소재로 시작하더라도 기관과 학급에 따라 놀이가 전개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다양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시도해 보고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현장 실천사례는 각종 연수나 컨설팅, 멘토링,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공유될 수도 있고, 누리과정포털인 i-누리나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청,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유할 수도 있다. 온라인 사례 공유는 많은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실천해 보면서 다르게 적용된 부분을 다시 공유함으로써 현장 실천 사례를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인 누리과정포털 i-누리를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바) 초중등 환경 개선 사업 및 생활 SOC 사업²⁾ 연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 환경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해야겠지만,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물리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간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공간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은 개선이 필요하며, 실내외를 연결하는 데크 설치 등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실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이미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유치원까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사) 원격교육 자료 개발 및 관련 연수 실행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등원이 전면 제한되거나 간헐적으로 등원하는 상황으로 방역 등에 집중하면서 개정 방향대로 운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향후 감염병 상황은 지속되거나 반복될 수 있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유아 대상으로도 원격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이지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과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원격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사와 부모의 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도구와 자료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연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이 여기에 해당함.

3) 재정 측면

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대집단 일방향식 연수에서 토론과 워크숍 형식의 연수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출하였던 비용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전문가 인력 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전문가 인력 풀 운영,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약 1,034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표 5-7〉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

항목		산출 근거	비용
연수	교사	78,583명 ³⁾ × 50만 원	약 393억
	관리자	21,023명 ⁴⁾ × 50만 원	약 105억
전문가 인력 풀 운영		2,377명 ⁵⁾ × 600만 원	약 143억
학습공동체		39,292명 ⁶⁾ × 100만 원	약 393억
계			약 1,034억

나) 개정 누리과정 운영 현장 실천사례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지원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행연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자료 개발을 위한 지원과 개발된 자료를 누리과정포털 i-누리에 탑재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이트 기능 고도화와 함께 공모전과 서포터즈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 현장 실천사례 개발 및 공유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실행 연구를 지원하고 i-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매년 약 24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3) 누리과정 운영 교사는 유치원 36,635명(2020 교육통계)과 어린이집 41,948명(보육통합시스템 2020. 11. 5일자)을 합하여 총 대략 78,583명, 1인당 연수비용을 50만원으로 가정함.

4) 유치원 원장 3,960명과 원감 2,000명(2020 교육통계),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15,063개소의 원장(보육통합시스템 2020. 11. 5일자)으로 총 21,023명, 1인당 연수비용을 50만원으로 가정함.

5) 누리과정 운영기관은 유치원 8,705개원(2020 교육통계), 어린이집 15,063개소(보육통합시스템 2020. 11. 5일자)로 총 23,768개임. 컨설턴트 1인당 10개 기관을 담당하고, 1개 기관당 60만원의 수당을 가정함.

6) 누리과정 담당 교사 78,583명의 50%가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8〉 개정 누리과정 운영 현장 실천사례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예산

항목	산출 근거	비용
실행 연구	2,377기관 ⁷⁾ × 1,000만 원	약 238억
i-누리 활성화	12개월 × 2,500만 원	3억
계		약 241억

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은 인력 배치 등의 인적 환경 개선과 열악한 환경 개선이나 공간 확장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통한 운영비 감소 부분을 보존해 주고, 보조인력을 지원하며 환경 개선과 공간 확장을 위해 매년 약 3,72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표 5-9〉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항목	산출 근거	비용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612,538명 ⁸⁾ × 30% × 463천원 ⁹⁾	약 851억
보조인력 지원	23,768기관 × 11,676천원 ¹⁰⁾	약 2,775억
환경 개선	238기관 ¹¹⁾ × 1,000만원	약 24억
공간 확장	2,377기관 ¹²⁾ × 300만원	약 71억
계		약 3,721억

7) 누리과정 운영기관 23,768개 중 10% 기관이 실행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함.

8)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유치원 유아의 30%를 감원하고, 감원한 유아의 표준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계함.

9) 표준유아교육비(2017년 기준). 박진아·김근진·윤지연(2017).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연구(V).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10) 누리과정 보조교사(4시간 기준) 지원 단가 973,000원*12개월 적용

11) 열악한 기관을 전체 기관의 1%로 가정함.

12) 10% 기관의 공간 확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라)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국민 대상 캠페인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철학을 학부모가 이해하고 부모의 양육과 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한 국민 대상 캠페인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국민 대상 캠페인을 위해 매년 약 592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표 5-10〉 학부모 교육 및 국민 대상 캠페인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	산출 근거	비용
학부모 교육	115,989명 ¹³⁾ × 50만 원	580억
국민 대상 캠페인	12개월 × 1억 원	12억
계		592억



13) 유치원 유아 수 612,538명(2020 교육통계)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유아수 547,349명(보육통합시스템 2020. 11. 5일자), 총 1,159,887명임. 유아 학부모 1인의 10% 참여를 가정함.

참고문헌

- 김혜숙·이미경·양윤정·배주정·이영미·김종윤·박일수·이승은(2018).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I): 모니터링 체제 설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문무경·이규림·김희수(2016). 누리과정 실행 평가: 교사의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진아·김근진·윤지연(2017).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연구(V).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수(2000). 행정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Patton, C. V., Sawicki, D. S., & Clark, J. J. (2016). Basic method of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3rd ed.). New York, NY: Routledge.

02

종합 토론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토론문

- 조운주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성지현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인혜 |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김민지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
임선영 | 학부모
김정희 |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우현경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본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0년도 일반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차기주) 미발간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정리함.

01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토론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제공한 유·보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및 생활 주제별 교사용 지도서가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019; 박선미·홍창남, 2012; 손수민, 2014). 획일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을 유아·놀이중심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틀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들은 준비 부족과 역량의 한계를 느낀다(이양숙·하양승·전홍주, 2020; 정주인·권귀염, 2020). 이러한 상황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바른 안착을 위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토론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달체계의 격차 검토 및 논의 필요

본 연구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전달체계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어린이집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기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연수 이수 비율, 장학 및 컨설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조운주, 2020)에서도 연구 대상자들의 소속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따라 2019 개정 누리과정 연수 이수 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전달체계에 따른 지원의 격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장학이나 컨설팅 경험이 없는 경우도 76.8%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격차의 정도 및 원인, 지원의 사각지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기관, 교사, 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실행 방안 마련

본 연구에서는 2018년에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를 하면서 전국 권역별 토론회와 설명회 및 교사 워크숍을 통해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2019년부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이양숙·하양승·전홍주, 2020; 정주인·권귀염, 2020; 조운주, 2020)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어서 막막함을 호소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저는 반도 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웃음). 그냥 놀이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는지. 저 책도 계속 보고는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자주 들어요. (F교사면담 5.22) (조운주, 2020)

그리고 본 연구에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원장과 교사의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교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에 따라서 2019 누리과정을 수용하는 것에 개인차 크다는 것을 인지하여 교사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적인 지원 방향이 논의 및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기관에서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유아들의 경우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결핍될 수 있는 경험과 교육적 지원을 계획해서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교사의 제안처럼 2019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 중에는 교육과정을 놀이중심으로 운영했을 때, 스스로 재미있게 노는 유아들은 소수이고, 사회성이 없는 유아는 놀이상황을 어려워하고 활동을 오히려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조운주, 2020). 유아의 기질, 사회성, 성격, 놀이성 등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놀이에 대해서 소심한 성격의 유아들은 힘들어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와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정 취지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관, 교사,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에 기초한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3 또 다른 획일화에 대한 대안 필요

본 연구에서 2019 누리과정 적용을 위해서 개방적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 영역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 책상 수를 줄여 보다 넓은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 유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 학급 외 복도, 층계, 체육실 등의 공유공간 및 교사실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구조적 놀잇감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 것을 탈피하려는 교사의 긍정적인 시도일 수 있다(홍새봄·배지현, 2019). 그러나 이러한 공간과 자료 제공 등의 변화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또 하나의 획일성이 우려된다. 또한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구조적인 놀이감의 제공은 유아의 놀이에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 현장 지원자료 제작 및 보급이 가장 높았는데, 현장 지원자료란 무엇을 의하는지 의문이 들고,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획일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개정 2019 누리과정이 또 하나의 획일화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교육과정과 놀이의 관계 이해 증진 및 교육과정 개정 방향

기존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안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5개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생활주제에 기초하여 교육계획안을 구성하다 보니, 교육과정은 바뀌어도 매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안이 어떻게 편성되는 것이 적합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경숙·남구·남미애, 노수자·이혜경·조운주·주태자, 2013).

이러한 어려움은 누리과정을 생활주제 및 활동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생활주제와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지도서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획일화를 초래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개정 누리과정 운영 관련 평가 내용이 ‘유아놀이, 유아발달, 일과운영, 실내외놀이공간, 놀이자료, 유아와의 상호작용’이었다. 이는 기존 누리과정 운영이 누리과정의 목표 및 내용 없이 생활주제와 활동으로 이루어졌던 오류처럼 누리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목표와 내용을 제공해주었으나 놀이 안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기존 누리과정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후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이 놀이와 어떻게 연결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교사들의 혼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교사의 역할변화에 따른 역량 개정

본 연구에서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변화 중 교사의 역할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로 포용력과 융통성, 창의적·도전적 사고, 놀이 이해 및 관찰 역량, 놀이지원 역량, 교사 주도성 조절력,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기관 프로그램과 놀이중심 교육과정 간의 접목능력 등을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 이에 따른 역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유치원 교원의 생애주기별 역량(신은수 외, 2010)이 개발된 지 이미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누리과정이 만들어졌고, 다시 개정되었다. 이처럼 유아교육과정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른 교사 역할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교사 역량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법, 행정, 재정적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법, 행정, 재정적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면, 첫째,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으로 ‘교사 1인을 기준으로 3세는 15명, 4세와 5세는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인력 배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담당 유아의 인원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현장교사들의 경우, 원격교육보다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줄이고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교사 대 유아 비율에 대한 검토와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사의 전문성 지원을 위해서 ‘유아교육법시행령 평가의 기준’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평가기준 만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보다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관련 별표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자격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실제적인 학력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행정적 지원으로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동아리나 원내 자율장학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동아리나 학습공동체 및 자율장학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1~2학급 규모의 기관에서는 학습공동체나 자율장학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기관별로 편차도 크다. 따라서 기관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동아리 및 원내 자율장학, 원격 동아리 및 자율장학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추후 누리과정 지원 정책 결정 및 누리과정 개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신 육아정책연구소와 연구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강경숙·남규·남미애·이혜경·조운주·주태자(2013). 누리과정 컨설팅장학 운영 매뉴얼. 서울: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19). 누리과정 정책연구. 충남: 충청남도 교육청.
- 박선미·홍창남(2012). 유치원 교원의 목소리를 통한 유아교육 책무성의 의미 탐색. 유아 교육연구, 32(1), 321-341.
- 손수민(2014). 누리과정 적용 및 실행에 대한 사립유치원장의 인식. 아동교육, 23(3), 45-61.
- 신은수·박은혜·조운주·이경민·유영의·이진화·이병호(2010). 유치원 교원의 생애 주기별 역량강화 및 활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양숙·하양승·전홍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과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3, 49-78. doi.org/10.37918/kce.2020.07.123.49
- 정주인·권귀염(2020). 놀이중심교육과정 시대: 변화를 위한 유아교사들의 시도. 유아 교육연구, 40(3), 93-118. doi.org/10.18023/kjece.2020.40.3.005
- 조운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초기의 유아교사 경험. 육아지원연구, 15(3), 105-125. doi : 10.16978/ecec.2020.15.3.005.
- 홍새봄·배지현(2019). 혁신유치원 만5세 바다반 홍교사의 학급수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4(4), 317-344.



NOTE

[illegible]

02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토론

성 지 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 자율성 확대,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하 개정 누리과정)'이 올해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의 시작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실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교원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적용 과정, 학부모의 인식 등을 조사하여 요구와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향후 관련한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고에서 제안한 현장의 다양성 추구, 교사의 전문성 제고, 유아의 참여 확대, 학부모의 이해 제고, 미래사회 변화 속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이라는 5가지 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안된 정책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우선 개정되어야 하기에 실질적 지원이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각 영역에서 함께 노력해주신다면 개정 누리과정의 성공적 안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정책 추진 시 함께 고려해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이원화된 근거법에 기반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통일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법과 제도, 행정과 재정적인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와 단위 기관의 권한 강화, 평가에 기관 의견의 반영 여부, 현장 여건 개선, 교사의 전문성 지원과 원격 교육과 관련하여 두 기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두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안한 법적 개정안들을 보면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율권을 기관 단위, 학급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기관평가 관련법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평가지표와 기준은 지역과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의견 반영에 소극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혼란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두 기관의 물리적 환경은 기관 간에도 격차가 있고, 유형별로도 편차가 큼니다. 예산확보와 꾸준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하여 법적 조항이나 제도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정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실행과 함께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와 대상, 모니터링의 체제와 운영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통 3년 주기로 시행되며 교육과정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급 단위가 아니라 기관 평가이며 대부분의 평가 영역과 해당 문항들은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는 변하고 이는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을 증대 시킵니다. 교육과정은 문서상의 개정 못지않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목적은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니터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평가하는 장치가 아니라 ‘개정 누리과정’을 개정 방향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차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유익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컨설팅, 장학, 교육과정 운영 연수, 교사의 전문성 등과 같이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시행되는 여러 제도들의 다양한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경우도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방법 및 평가까지 광범위하게 모니터링 되어 결과가 종합되어 질 때 교육과정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정 실행주체인 기관과 교사가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체성을 높이고, 학부모 유아, 지자체와 단위 기관도 면담, 토론,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한다면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질적, 양적인

모니터링을 다차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나 배경을 함께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과정의 실행수준과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고의 조사 결과 누리과정 관련 연수, 장학이나 컨설팅 여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기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며,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 수석교사가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는 조항과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 본연의 업무에 다른 관리적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연수에 있어서 교사 주도의 자율적인 연수를 권장하는 것, 연수 방법의 개선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 포털 i-누리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참여, 실행연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자료 개발을 위한 지원과 개발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지만 현재 일반 교사들이 i-누리를 어느 정도 참고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장학이나 컨설팅과 같은 지원에 있어서 유아교육 경력이 있는 분들은 유치원을 지원하고, 보육 경력이 있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 기관이 같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만큼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한 차이는 인정해야겠지만, 두 기관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 다른 현장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인력풀이 양 기관을 교차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장학사나 컨설턴트 같은 전문인원이 아니더라도, 교사들이 실행연구와 자율연수의 일환으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벽을 낮추는 제도와 환경이 제공된다면 자율적인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누리과정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유아들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험이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기르는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들의 놀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졸업하면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본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부모



들은 대부분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놀이 중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요구 사항에서도 두 기관의 학부모 모두 놀이 외의 학습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대비 읽기, 쓰기, 수학에 대한 선행교육을 사교육을 통해 하고 있으며, 이것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부모의 소득 수준 및 관심, 지역, 다문화 가정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초기의 학습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입학 초기의 학습 격차로 인해 학습부진아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보이는 학습 격차는 학년이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사들은 유아들의 놀이와 기관에서의 경험을 개정 누리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연결하여 평가하겠지만 그 내용이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와 '즐긴다'와 같이 내용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성취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유아들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학습능력에 어떤 부분들을 포함하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또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 더 논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선행교육의 요구나 선행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한 유아들의 발달권과 학습권을 위해서 우리가 책무감을 갖고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과 맞물려 유아들의 감염 예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원격 수업 도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누리과정 운영과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연구진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장의 여건이 빨리 좋아져서 개정 누리과정의 본 취지가 살아나고 운영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OTE

[illegible]

03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어린이집 현장 지원방안 연구

이 인 혜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 패러다임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 범주가 좀 더 간단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이전 누리과정에서 계획과 실행, 평가의 순환적 구조에서 계획과 평가항목과 비중이 너무 커서 실행과 구성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참으로 고단했었다. 보육현장은 누리과정보다 더 이전에 태어난 평가인증에 익숙해져서 여전히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도 평가의 영향은 어디까지인지 평가에 의하여 교사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일지는 맞게 쓰고 있는지 계속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은 계획과 평가 중심의 교육과정을 유아들의 주도권과 교사의 자율성에 방향을 맞추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직된 유아들의 놀이와 행복에 대한 내용을 권리로써 강조하고 교육과정을 바라보고 새롭게 안착시켜 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의미가 클 것이다. 1년이 지나가는 지점에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필요한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공감을 하며 토론은 발제 내용의 순서에 맞추어 몇 가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1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

○ 예산문제 차이가 전달지원체계의 차별로 이어짐

누리과정에 관하여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복지부는 국고예산을 수립하나 실제 누리과정과 관련한 예산은 복지부에 거의 없다. 누리보육료(1인 240,000원, 2020년 기준)도 자체편성이 아니라 교육부 예산에서 받아 전달하는 시스템이고 심지어 누리교사 수당



예산도 별도로 없어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전국 어린이집 교사 수 × 360,000원을 선공제하여 유치원은 유아 1인당 70,000원 일괄지급, 어린이집은 약 5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와 복지부는 알고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도 복지부도 서로 권한 밖이라고 한다. 어디에 있어야 할까?

다음은 격차해소를 위한 요청 예산으로 2021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국회에 제안한 보육예산안이다.

소요예산 : **1,810억 원**-41,898명(누리반 교사 수)×360,000원(누리반 담임 교사 수당)×12개월

그러나 2020년 12월 2일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결되었다. 상황이 이정도이니 개정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사업예산은 복지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예산의 차이는 발제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체감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차별로 이어져 속상하다. 향후에는 누리과정과 관련한 모든 예산은 현장과 논의하여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누리비도 같이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기를 바란다. 개정 누리과정이 유치원의 유아들의 권리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예산은 유아들의 권리문제인 것이다.

○ 전달체계에 따른 내용의 차이

유아교육과 달리 어린이집은 시도별 지원은 차치하고 중앙차원에서의 교육조차 크게 실행된 실적을 전달받거나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 발표된 결과의 통계자료를 보면 마치 어린이집이 훨씬 열악한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하고 있으나 원인으로서 예산에 대해 다시 고민해주어야 한다. <표 4-7>을 보면 그나마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누리교사교육도 더디게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집합교육의 시점이 코로나 발발 이전에 실시한 유치원과 이후에 실시한 어린이집의 상황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 실제 현재로서는 한 원에 1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에 대한 논의

초중등에서도 원격교육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인 교육격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원격교육실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환경과 어린이집의 환경도 점검해보아야 할 것 같다.

2 개정 누리과정 운영사례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읍면지역 가정의 유아와 장애 통합반에서의 반대의견을 표현했다고 하지만 일반 교실 내에서도 발달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도 어려운 건 사실이다. 반대의견이라기 보다 개별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이 지원되기를 바란다.

○ 교사와 원장업무의 보조인력 충원 필요

어린이집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나 4시부터 5시 사이의 긴 귀가시간, 차량이용시간과 업무, 지역에 따라 인력충원이 어렵거나 예산 소진 등으로 교사지원이 불가한 상황 등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교사들도 언급 하였던 연수 등 평가업무에 5시가 지나서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빠듯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도우미(청소인력지원)은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인력 지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력이 늘어도 행정적 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원장의 업무는 교육지원과 안전지원, 행정업무로 인해 하루 일과가 시간싸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에서의 비담임 종일교사나 원감제도가 꼭 필요하다.

3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

○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

방역과 출근 보고 등으로 인해 바쁜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매일 보고 해야 하는 업무와 맞벌이나,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를 매일 체크해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사대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특별활동이 없어지며 없어진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만도 줄어들어 시간과 공간이 느슨한 교육에 대한 멋진 경험도 가능하였다. 집콕하는 아이들을 위해 오히려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부모님의 참여와 가정과의 소통이 가장 활발하였던 것 같다. 부모역량의 가능성을 본 계기가 되었다.



4 정책제언

○ 법과 제도측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단위기관의 권한 강화라고 하였으나 보육에 관한 지자체는 역량이 되는 인력은 없다. 오직 예산과 지도점검만 가능하고 육아지원센터와 협력도 고무할 만하지 않다. 현장과 밀착된 인프라, 장학과 관련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발제자료에서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의 학급당 교사대 아동 비율만을 문제 제기하였다. 실제 유아수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은 종일제가 훨씬 많아 일과시간 대비 하여야 하지 단순 비교하여 유치원만 유아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방학이 없어서 교사휴가가 일년 내 분산되어 휴가대체와 대체에 따른 행정업무가 너무 과도하다. 예를 들어 1인 15일 기준으로만 보아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면 10명이 직원으로 있는 경우 150일간 일년 내내 휴가 처리에 힘을 빼야 한다. 최소한의 권장 기간이 여름 겨울 1주일씩만이라도 있으면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 행정측면

요즘은 교사에게 시간외에 교육 등을 요청하기는 참 어려운 사정이라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과 같은 교육에서 수당, 업무경감, 상 등을 유인책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본적으로는 교사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나 보수교육 시 일부 교육이 인정되는 시수로 반영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지자체간 협력강화와 개발자료 공유는 꼭 필요하며 아직도 교사와 원장이 누리과정 포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생활 SOC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꼭 적용되었으면 한다.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관건은 부족한 보육료로는 교사인건비 감당하기에도 어려워져 환경개선에 대한 여력이 없다. 실내외를 연결하는 데크 설치 등은 꿈만 같은 일이다. 현장 여건 개선 지원은 정말 말만 들어도 감동이다.

○ 마치며

개정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꼼꼼하게 청취하고 조사하였으나 통계결과에는 만족이 어려우나 이는 결과로서 교육부나 복지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대안과 제안들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 예산과 행정의 전달체계를 통일하고 단순화하여 교육과정이 살아나고 미래가 밝아지며 교직원들의 전문성과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싶다. 저출산이어도 태어난 아이들만이라도 바르게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고생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NOTE

[illegible]

04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제안

김민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파견교사

유아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전교육, 장학자료, 교사연수 등에서도 모두 놀이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실천은 교사가 계획한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었다. 또한 학부모 참여수업, 동료장학 등의 평가도 대집단 활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정답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던 와중에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고 놀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유아들은 놀이할 때 가장 즐겁게 몰입하며 눈을 반짝였고, 교사가 유아에게 다가가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하기도 하였다. 유아들은 놀이에 즐겁게 몰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다. 이제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는 유능한 존재임을 믿고, 교사가 갖고 있던 주도권을 유아에게 넘겨줌으로써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더불어 개정된 누리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지원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발표문에 근거하여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교사의 입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급당 유아수를 감축해야 한다.

발표문에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급당 유아수가 많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과,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 1순위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꼽았다. 학급당 유아수 감축은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된 이후 많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라 모두가 들어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며, 더욱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유아가 무엇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학급 내 유아의 수가 많다면 교사가 지원해야 할 유아가 많아지고, 교사가 개별 유아를 관찰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아의 수가 많은 만큼 유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다양할 것이고, 교사는 유아가 관심을 갖는 모든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몇 명의 유아만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학급당 유아수가 감축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전체 유아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개정 누리과정은 ‘일부’ 유아·놀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나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지원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이 아무리 높고,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결국 모든 유아가 담임교사의 적절한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학급당 유아수 감축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므로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외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놀이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는 유아가 누구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등을 되짚어보고, 이를 적절하게 지원해주기 위해 어떤 자료나 내용으로 상호작용을 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는 방송 관련 기자재를 점검·관리하고, 유아의 학비를 계산하고, 유치원으로 쏟아지는 공문을 처리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면 할수록 그만큼 유아의 놀이에 대해 회상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진다. 교사의 본질적 업무가 교육과정 운영인 만큼, 유아 놀이 및 교사 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실무사 배치를 확대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사 학습공동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 학습공동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 중 하나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주제로 교사 학습공동체를 구성한다면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며 부딪히는 어려움과 같은 교사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동료교사와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사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관기관에서는 교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표문에서 제시했듯이 수당 지원, 유인가 제공,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제공, 업무 경감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교사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시간을 직무연수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행정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교사 학습공동체와 직무연수는 직무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 학습공동체는 동료교사들과 함께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직무능력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시간을 직무연수시간으로 포함시키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누리과정포털 i-누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i-누리에는 현장지원자료 외에도 각종 계획안 및 평가 양식, 운영 사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의문 사항에 멘토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Q&A 등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개정과 i-누리 운영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재정은 한정되어있으므로 탑재된 자료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엔 정답이 없지만 i-누리가 활성화된다면 교사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유아에게 더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누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장학자료를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 형태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문점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Q&A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발표문에서 제시했듯이 i-누리 관련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공모전과 서포터즈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실행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기관장 및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유아·놀이 중심으로 일과 운영을 실천하려 하나, 기관장의 의견과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한 후 유아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관장이 기존 교육과정을 고수하며 생활주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사는 개정 누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각종 교육계획안, 놀이기록 등의 양식을 각 교사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사용할 수 있으나 기관의 모든 문서 양식을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교사의 개별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교사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에게 맞는 계획과 평가 등의 양식을 고민할 수 없게 된다. 교사가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함에 있어 스스로 고민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의 경우에도 발표문에 근거하여 대부분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놀이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부모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학습적인 부분이었다. 이러한 학부모의 걱정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다소 상이하다 느낌으로써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기관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된다는 부분을 부각하여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발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부모 교육 및 국민 대상 캠페인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인식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가 다소 혼란과 어려움을 느낀다 하여도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겪어야 할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이 든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의 놀이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모두에게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라 인식되길 기대해 본다.

NOTE

[illegible]

05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임 선 영

학부모

먼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분을 살펴 볼 때, 전체의 60% 정도는 누리과정 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37%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 역시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담임 선생님과 통화로 통해서 뭔가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정책이 변화하는구나’ 정도의 인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유아교육에서 놀이중심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7%가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를 걱정한다고 나타났지만 이와 관련된 걱정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도 36%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유아기에 놀이중심의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여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고 이에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세를 마치고 7세를 앞두고 있는 요즘은 아이가 이제 1년 뒤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놀이중심으로만 있다가 어떻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놀이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 학부모가 느끼는 걱정이나 우려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의 변화를 체감하는지 조사한 결과, 54%의 부모가 체감한다고 응답하였고 46%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체감한 것은 아니지만, 주간계획안, 가정통신문, 유아관찰 및 평가 등 문서의 변화를 통해서 저도 누리과정으로 인해 ‘유치원이 변화하고 있구나’ 정도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변화하였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의 부모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저도 제 아이에게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유치원에 다닐 때는 놀이시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는 없고 본인이 좋아하는 미술영역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고 꾸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유치원 환경이나 친구들이 익숙해져서 일 수도 있지만, 올해 아이가 더 유치원에 가는 것을 더 즐기고 행복해하며 유치원에 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놀이 이외의 학습적인 것에 대한 요구가 44.6%로 제일 높고, 바깥놀이나 대근육 활동시간 확대 및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가 각각 1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주변 또래 학부모들과 유치원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가 주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앞둔 7세 아이들은 놀이를 통한 배움도 너무 중요하지만 학습에 대한 부분 역시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습식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7세까지 유치원에서 놀이중심으로 생활하는 점은 과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 유치원에서 생활하는데,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한글이랑 수학 등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 온전히 부모의 책임이 된다면 부모가 아이의 학습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사교육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바깥놀이라든지 특별체험활동들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되긴 했지만 주로 실내 놀이 위주였기 때문에 놀이 활동의 범위와 다양성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의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지 최대한 바깥놀이나 대근육을 사용하여 하는 놀이 그리고 체험활동을 통한 놀이교육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모의 경우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이 32%로 제일 많았고,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과 교사교육 강화가 20%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저 역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놀이중심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이기에 학습식 교육보다 다양성이나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텐데 현재의 교사 대 유아 비율로는 교사가 모든 아이들을 관찰하고 때에 맞게 아이들 개인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수 있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아 대상으로도 적절한 원격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등원이 전면 제한되거나 간헐적으로 등원하는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는 정상적인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1학기는 등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에서 매주 한 번씩 택배로 보내주는 놀이자료,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설명서나 만들기 재료 등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있고 가정 일도 해야 하기에 놀이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규칙적인 일과를 갖기도 힘들고 또 대부분의 한 번에 받은 자료를 모두 소진해버리고 나면 남은 시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2학기에는 유치원에서 그 동안의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주셔서 원격자료를 놀이자료와 함께 배부해주셨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원격자료를 통해서 선생님과 인사도 하고 노래와 율동도 하고 잠시나마 집에서도 유치원에 있는 것 같이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또 6세 정도 되니 원격자료를 통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색칠하기, 만들기도 가능하고 이야기 듣기 체조하기 등등 다양한 놀이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와 자료를 사용하여 원격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이런 감염병 상황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철학을 학부모가 이해하고 부모의 양육과 교육 역량을 제고하며 가정에서도 기관과 함께 연계하여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에게도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의 방안이 널리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06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

김 정 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개정되기 전부터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다. 관심과 논란의 대부분은 지금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와 진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럼에도 2020년 3월 개정 누리과정은 시행되었고, 등원과 원격수업을 병행해 가며 교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 중심 교육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원격수업의 찬반 논란을 떠나 원격수업에서 놀이 중심 교육이 가능한지의 의문을 넘어 교사와 유치원은 개정 누리과정 적용과 소환된 미래라는 흐름 속에서 새롭게 또는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개정 누리과정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철학은 그 이름을 듣고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도 한 것처럼,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은 알겠으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놀이 중심 교육이 어떤 교사에게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실천 방법은 손에 잡히지 않는 철학과 비슷하기에 교육 과정을 마주하며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나누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나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모여질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놀이 이해, 놀이 실천, 놀이 심화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시범유치원 운영, 공·사립유치원 교원 대상 연수 70회 이상, 원격과 등원 수업에서의 놀이중심 교육 실천사례 나눔을 위한 웹진 보급, 교사 지원 온라인 플랫폼 ‘놀이 온(on)’ 개설, 온라인 놀이 토크 콘서트 등을 실시하였고, 놀이 2020 자료 개발을 통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담론을 나눌 계획이다.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 되는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이 온전히 현장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시·도 교육청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정책 연구소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행·재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현장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덧붙여 교원의 실천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려하였으면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철학의 정립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자 유치원은 연간 교육계획을 어떻게 작성하지? 영역은 그대로 두어도 되나? 관찰과 기록은 어떻게 하지? 모두 외형적 변화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개정 누리과정 연수 또한 사례를 통해 개정의 방향을 설명하고자 했다. 사례는 글로 표현된 다른 교사의 내용일 뿐 나의 경험은 아니기에 그 본질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사례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례를 찾게 만든다. 다소 오래 걸릴지라도 왜 ‘놀이 중심 교육’인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민을 통해 나의 교육관을 정립하고 철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고는 여전히 유아는 없고 놀이 현상만을 쫓아가는 놀이 중심 교육이 될 것이다.

둘째,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본질 찾기이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사전 계획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찰과 기록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교사들은 유아들의 놀이 사진으로 교사가 얼마나 유아에게 많은 배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동료에게 증명하려 한다. 기록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놀이 중심 교육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놀이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이 오히려 교사가 유아와 놀이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초점을 다시금 유아와 유아의 놀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놀이 중심 교육을 위한 공간의 확보이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편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사립유치원의 현실은 교실 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바깥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바깥 놀이터가 없어 동네를 줄지어 한바퀴 돌고 오거나, 정형화된 지역 놀이터에서 시간을 지켜가며 놀다 오는 것이 현실이다. 탐색하고 체험하며 모험을 즐기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실내외 공간의 확보는 유치원 설립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유치원 설립 인가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충분한 놀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놀이 중심 교육을 위한 인력의 확보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교원의 공백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은 이미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으로 인해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조교사 배치보다는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기본생활습관 지원이 많이 필요한 3세 학급에는 정규교사 2명을 배치하고, 분절된 수업이 아닌 놀이 중심 교육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지원 교사를 유치원당 1명씩 추가로 배치하면 교원의 공백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놀이 중심 교육의 완전무상교육 실현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며 맞이한 5월 27일 등원 개학은 반가움과 동시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반환에 대한 요구는 경영의 어려움뿐 아니라 교원의 급여와도 직결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 상황과 미래 사회 변화 속에서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지급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정적 근무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도 경감할 수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도 있다.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완전무상교육을 통해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07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토론문

우 현 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우현경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 2020년 3월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적용된 첫 해로, 새로운 보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3~5세 연령의 반을 맡고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사연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른 심화연수, 보육컨설팅, 교사 소모임, 학습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발굴 등 별도의 현장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전국 센터의 현장 지원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보육컨설팅 사업매뉴얼과 교육콘텐츠 개발,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3개년에 걸친 개정 누리과정 시행 모니터링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현장에서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시스템 내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교육과정의 차이가 크다면, 생의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으로 인한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원 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의 격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주체의 차이

본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누리과정 개정 작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사업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현장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콘텐츠 개발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중앙-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의 참여면에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사연수 외에는 홍보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 누리과정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현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산 편성 및 지원의 차이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예산의 면에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보건복지부는 기금이나 국고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예산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지원, 교사연수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및 시도, 시군구 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개정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현장 안착에 있어 지역별 예산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재원 마련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어린이집 보육예산 지원에는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지원되는 예산 집행 시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과정 질 관리 방식의 차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교육과정 지원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주도로 누리과정 개정 작업을 이끌었으며,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권역별 토론회, 설명회, 워크숍 등이 이루어졌고 교사 연수 및 장학을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는 주된 방식은 ‘어린이집 평가제’라고 할 수 있다. 평가지표에 반영된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상호작용 관련 지표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육과정의 질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평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작될 시기,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에 평가인증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상시 진행되는 평가제로 자리 잡았으며, 기본적인 질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정책 방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은 현장 교사의 자율성 강화이며,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과 기관, 담당 유아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자발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교사가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며, 보육현장 가까이에서 컨설팅 및 학습공동체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지원 등으로 보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필요하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육 현장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율연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율 연수 참여시 보수교육 시수 인정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용 시간 및 교사의 근무시간 차이

본 연구에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좀 더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기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어린이집의 환경이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본 보육시간이 길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유아를 고려하면 교사의 근무시간에서 개정누리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 연구의 유치원에서는 소모임을 선호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 외부전문가 지원을 선호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소모임에 참여할 시간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개별 유아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치원보다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없이 상시 운영되는 어린이집 특성상 동료교사의 연가 사용과 보수교육 이수 등으로 어린이집을 비우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필요한 교사 대 아동비율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맺으며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두 기관을 지원하는 정책의 차이는 크나,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은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현재의 지원 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관 간의 지원 정책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및 교육지원의 차이는 완화하되 기관 자체의 특성에 따른 현장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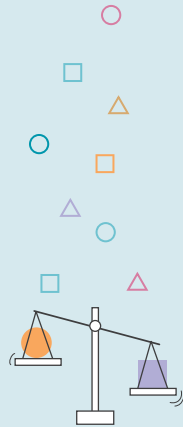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주도적으로 놀이하고 생활하며 발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영유아가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